

1/1/23

설교 제목: 삶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학개 1 장 1-15 절

- (학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학 1: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 (학 1: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학 1: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 (학 1: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학 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 (학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절관주** 시 119:59,
- (학 1: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절관주** 시 87:2,
- (학 1: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절관주** 사 17:11,
- (학 1: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 (학 1: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 (학 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 (학 1:13)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절관주** 대하 36:22, 스 1:1, 학 2:21
(학 1: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절관주** 학 2:10

2023 년 첫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2023 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쓴 2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무너진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방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가
학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족보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평범한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속개할 것을
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학개서를 보기에 앞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이유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개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대에 기록된 에스라서와 스가랴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개서, 에스라서, 스가랴서는 모두 동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특별히 학개와 스가라는 BC
586 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38 년 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함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 번에 걸친 예루살렘 공약으로 BC 586 년 완전히 멸망했고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BC 539 년 하늘도 찌를만큼 기세가 등등했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바사의 속국이 되었는데 바사 고레스 왕은 속국들에 대해 바벨론과는 달리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바사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 차로 BC 537 년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뜻을 모으고, 귀환 2 년째 되는 BC 536 년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책임 하에 성전 지대 (터) 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스룹바벨과 유다 족장들을 찾아와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명목상 이유는 성전 재건 공사에 자신들을 동참시키지 않은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혈통 문제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앗수르의 식민지 백성 이주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 땅에 옮겨진 이방인들과의 통혼함으로 대부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건축은 바사 고레스 왕 제 4 년 (BC 536 년) 에서 바사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약 16 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에 대해 낙담하지 않았고 이기주의적인 무사안일 주의로 세월을 흘러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져 놓은 성전 터는 잡풀과 쓰레기로 뒤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지 14 년째 되던 해 다리오 왕 2 년 6 월 1 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그후 성전의 터를 다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학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학 1: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지칭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북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의 막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지 벌써 16 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지도 14 년이나 지났건만

그들은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 놓으며 적극적으로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간직했던 사명 의식은 희미해졌고 점점 세상의 안락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니고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경기가 풀리면,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핑계를 대며 성전 재건을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들은 변명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고 핑계대는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학 1: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 1: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사는게 합당하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학 1: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 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핑계하였습니다.

그렇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꼬집으시며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일깨워 주십니다.

(학 1: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 1: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학 1: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궁핍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땅, 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육축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해가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이유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은 백성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랐다’는 말은 백성들의 이기주의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빠르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으나 자신의 일에는 빨랐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는 한없이 느렸지만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는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학 1: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다가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금 은 보화로 꾸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리라고 생각하던 백성들의 생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학 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깨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학 1:13) 그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게 하십니다.

(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 1: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성령의 역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요?

평안한지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우선 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각자 자기 일에는 너무나 빠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유독 더디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삶의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교회인 우리 자신이고, 나아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로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셨듯이, 이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